



안녕하세요? 저는 노헤레나수녀입니다.
저는 수도생활에 관심을 갖고 성소피정을 다니던 1985년 대학교 4학년 때 광주 서창에 있던 이전의 수련소로 성소피정을 가서 수도회 입회자들이 쓰는 질문지를 쓰고 얼떨결에 수녀님들의 오라에 초대되어 카드놀이도 했던 기억도 떠오르며, 1989년 2월에 지금의 한국관구 본원인 본촌동 수녀원에 입회를 하여, 은퇴후 본원에서 지내시던 sr.메리아그네스와 함께 지내기도 하였고, 2수련기에 강진 성요셉여고로 첫 사도직 파견을 받아 1996년 1월 22일 종신서원을했고, 2016년 2월 28일 강진성요셉여고가 폐교를 하고 나올 때까지 가정과교사, 상담 교사, 기숙사 사감 등 다양한 소임을 겸하고,

11년간의 학교장책임을 맡으며, 은퇴 후 강진에 머물러 계신 sr. 양노린, sr. 민지인과도 함께 살았고, 다시 원어민교사로 매년 혹은 몇 년씩 자원해오셨던 sr. 제르미를 시작으로 sr.폴린, sr. 필립, sr. 메리앤조셉 자매와 sr. 메리앤 윈터즈, 총동창회에 초대되어 한국 방문을 하신 sr. 엘리스까지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자원해 오셔서 사랑으로 헌신하셨던 미국 수녀님들을 만나 뵈고 살았던 날들을 회상하며, 하느님께서 저를 첫 파견부터 오랜 시간 강진에서 살게 하시며, 사랑의 씨앗 수녀회의 산 역사가 되신 수녀님들과 수도회 건물들의 기억까지 두루 체험해 해주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996년 종신서원을 하고 삼년간 광주대교구 농민사목에 참여하며 생태적 위기와 유기농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생겼고, 2003-2004년 벨기에 루뱅대학에서 생태윤리학 공부를 하며 생태적 회계의 삶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시 돌아간 성요셉여고에서 학생들이 일상과 교육 현장에서 생태적 감수성과 친환경적 삶을 살도록 접목시키며 교육을 했던 일들이 보람된 추억으로 남습니다.



1960년대 열악한 한국 교육 현장에서 선진교육과정과 열정으로 강진의 딸들을 교육시켰지만, 2천년대에 이르러 한 국사회의 공교육 성장과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입학생의 부족과 열의를 가진 교사진을 유지하지 못하여 결국 폐교를 결정하기까지 일만 명이 넘는 졸업생을 씨든의 영성으로 보살피고 교육해왔던 여정에 동반하며 겪은 기쁨과 보람과 아픔이 제 수도 여정에 자양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2020년 2월 말부터 신설 아파트 밀집지로 젊은 세대가 빠져 나간 대전지역의 외곽지 은퇴 고령자들이 주를 이룬 조그만 정림동성당에 전교수녀로 파견받아 왔으나, 코로나 팬더믹 시대라서 대부분의 본당활동들은 중단되었고, 조용히 함께 미사를 드리며 안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늘로 가시는 교우들의 장례예식에 함께 기도드리며 유족들을 격려하는 일들이 주된 활동입니다만, 멈추고 돌아보며 본질로 회개하라는 하느님의 초대라고 여기며 지내고 있습니다.



Hello! I am Sr. No Helena. When I was a senior at university in 1985, I attended a vocation retreat at Seochang novitiate in Gwangju. I did a questionnaire for the vocation candidate. I played cards with other sisters in my bewilderment. After that, I entered the Provincial House in February 1989, located now in Bonchondong in Gwangju. I was able to spend time with Sr. Mary Agnes, who stayed at the Provincial House after she retired.

My first ministry was teaching at Gangjin High School as a second year novice. I had perpetual vows on January 22 in 1996. Until February 28, 2016, the year of the closing of St. Joseph High School, I worked there as a Home Economics teacher, counseling teacher, dormitory inspector and

served as principal for eleven years. For those years, I lived with Sisters Mary Noreen Lacey, Jean Malloy, and Jeremy Mahla, also Pauline, Mary Philip, Ann Patrick, Marian Joseph, Mary Ann Winters, and Sr. Alice Ruane, who visited Korea by the invitation of one of the alumni. Recalling all the sisters I lived with and the time I spent with them, and the memories of the growth of our congregation in Korea reminds me of God's grace for me to experience the memories of our community's history.

After perpetual vows, I worked for farmers in Gwangju Archdiocese for three years. This time raised my awareness of the ecological crisis and the necessity of organic farming. It led me to study Ecological Ethics at Leuven University from 2003 through 2004. Going back to St. Joseph School, I taught students to live eco-friendly with sensitivity in their daily lives. I still recall that time was truly meaningful and emotional.



In the 1960s, during poor education circumstances, our sisters educated the girls in Gangjin with the pioneer school system and passion in Korea. They taught them to grow as educated women who lead the world. In the 2000s, due to the growth of public education and the decrease of the population of rural areas of South Korea, St. Joseph School was closed. The lack of students and the decreasing passion of the teachers was another reason. However, I am sure that all the efforts that accompanied the journey of our ten thousand alumni became nourishment to my religious life.



Since the end of February 2020, I have been working at Jongrimdong Parish in Daejeon, where most parishioners are retirees. There are lots of high-rise apartment complexes. Due to the COVID-19, activities in the parish are not happening, so I call them often, attend funerals sometimes, and have time to pause and reflect. This time might be an invitation of God for conversion to go back to the essentials.

